

울산 입시 컨설팅? '이것'이 먼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위 1% 입시 연구소, **생기부 연구소**입니다.

지금 울산입시컨설팅을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 공통된 바람이 있으실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제대로 준비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

하지만 이런 간절함을

그저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심지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악용해

고액의 비용만 요구하는

컨설팅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단독] "의대 보내줄게" 사기 혐의 입시컨설턴트, 브로커도 썼다

[단독] "의대 보내줄게" 사기 혐의 입시컨설턴트, 브로커도 썼다 ... 강남의 유명 입시 컨설턴트가 대학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에게 33억 원을 가로챘다는...

2024. 1. 12.

이는 단순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모두 잃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수백만 원의 비용보다

더 안타까운 건,

다시 돌릴 수 없는 학생부 기록과

3년간의 입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입시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합격자 수?

중요한건 '합격률'입니다

울산 입시 컨설팅을 찾는 분들이
가장 흔히 흔들리는 문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겁니다.

2024 SKY

최종합격자 10 명 배출!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SKY 에 1 명 붙이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이 숫자,

전체 수강생이 200 명 중 10 명이라면



김민준
김민준

서 컨설팅 비추합니다. 전공과 관련 없는 대학생 알바가 해 주는데 전문성도 없고 성의도 없습니다.



김민준
김민준

작년에 면접 들었는데 쌤들이 대학생인지 대학원생인듯했어요~파이널 1회 듣고 아이가 어렵기만 하고 도움안된다했어
요...영과고나 오래들은 학생들과 같은 내용이라 파이널수업은 어려운듯...-

이런 곳의 특징은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맡는 복붙식 컨설팅,

학생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대량 관리 시스템이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몇 명'만 골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죠.

그래서 울산 입시 컨설팅을 고를 땐

합격자 수보다,

총 수강생 대비 합격률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학생을 위한다면

이런 걸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1) 학생의 학습 성향과 수준

2) 목표 대학에 맞춘 전략적 로드맵

3) 최신 입시 트렌드 반영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밀착 지도가 이뤄져야하죠.

그래야 상위권 대학 기준
80~90% 이상의 합격률을
달성할 수 있는겁니다.

입시 연구의 '깊이'를 확인하세요

울산입시컨설팅을 고르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또 하나의 기준은 바로,

입시 변화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는가입니다.

대한민국 입시는 매년 변화합니다.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작년에 통했던 전략이 올해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입시 흐름을 읽는 힘'이 중요해졌죠.

특히, 2025 학년도 입시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학종 평가 기준, 어떻게 변했나?

✎ 문영훈 기자 | ⌚ 입력 2024.05.17 12:07 | 💬 댓글 0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3가지 평가요소로...

그 이유는 바로,

학종의 평가 요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손 탄 학생부"는 이렇게 걸립니다

✎ 공다경 | ⌚ 입력 2023.10.05 08:30 | 💬 댓글 0



'별로'인 생기부 소재, 기록들

이는 대학이 더 이상

'컨설팅 티 나는 생기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현행 평가 요소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 ↓				
개선안 평가 요소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력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탐색 활동과 경험	-협업과 소통능력 -리더십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준수	

학업역량 & 탐구활동 → 탐구력

전공적합성 → 진로 역량 (진로 탐색 과정과 경험 중심)

이전에는 진로 관련 활동을 많이 나열하거나,

심화 프로젝트, 보고서 등을 통해

‘풍부함’을 보여주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학은 단순한 활동 목록보다,
그 안에서 **학생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탐구해갔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깊이’ 없는 생기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 :

2024학년도 대입 자소서 전면 폐지 .. 학종 내신·세특 영향력 ...
2023. 1. 16. —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돼 학
종에서 내신·세특의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부 주요 기재 ...

게다가 자소서까지 폐지되면서,
대학은 생기부 하나만 보고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내용의 진정성과 맥락을 훨씬 더
까다롭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 손길이 묻어난
'전형적인 컨설팅 생기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되거나,
서류평가 단계에서 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입시 연구를 게을리하는 컨설팅 학원은
이런 중요한 변화를 놓치고,
여전히 **'옛날 방식'**만을
고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된 컨설팅이란,
단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입시 정책을 **'읽고'**

학생에게 맞춰 **'진화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컨설팅 없이는

자신이 없는데요...

물론,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사로잡는

'합격하는 생기부'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이고,

정보를 꾸준히 찾아본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공부하기도 벅찬 고등학생들이

1) 대학별 전형 기준과

2) 계열별/학과별 트렌드를 분석하고

문장 하나하나에 전략을 담아

학생부를 완성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한 가지 팁.

바로, **'대학에서 인정한 생기부'**를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정답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검증된 결과물에서

성공의 흐름과 전략을 읽는다면,
입시 성공 확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고 1/고 2 학생이라면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합격 생기부는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온라인에 공개된 일부 사례들은
정보가 단편적이거나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료활동	<p>정신의학자로서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발현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통찰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의욕적으로 독서 기반 탐구 활동 및 연구 동향 분석을수행하며 전문 역량을 향상하고자 함. 수학 I 교과와 청소년기 자살률 증가 추이 분석 활동 후 발달 시기별 정신 문제 발현 양상이다를 것이라 가설을 설정함. 이를 검증하고자 '정신건강의 이해', '청소년 발달과정의학'을 탐독하여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발달 특성 및 부적응 문제를 분석함.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의 상관관계를 성장 시기별로 도표화하며, 청소년기로 갈수록 사회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 추론함. 사회환경적 요인에서 기인된 정신 건강 문제 및 품행장애를 살펴며, 그 중 ADHD 에 주목해 심화 탐구를 진행함. 유전적, 환경적, 뇌의 구조적 장애 등 ADHD 의 요인이 다양한 만큼 중재 프로그램 역시 다양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연구자료 및 '아동 청소년 뇌 기반 심리치료'를 활용해 약물치료, 인지행동 치료, 뇌파를 활용한 뉴로 피드백 등 ADHD 의 중재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열정을 보임. 그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ADHD 의 진단 혹은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판단에 있어 '범주형진단'에 의거하고 있으며 객관화된 지표가 부족함을 인식함. 이에 정확한 질환 진단 및 효과 검증을 위해 전문적인 의학적 지표 및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개인의 생물학적·사회환경적 요인에 기인해 발달 과정상 충족되지 못한요소를 파악함과 더불어 뇌파, 뇌 신경학에 기초한 객관적인 지표 개발의 연구 의지를 내비침. 자신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일련의 과정에서 사고의 통찰과 확장 과정이 인상적임.</p>
생명과학 1	<p>뇌과학과 신경계의 통합적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뇌는 어떻게 의식을 인식할까'를 주제로 탐구함. '뇌과학과 의식 현상' 등의 학술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자료를 정리함. 이를 통해 광역뉴런 작업공간이론과 통합정보이론을 정의하고 두 이론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 특히 통합정보이론에 대해서 자극을 가한 후의 대뇌피질에서의 흐름패턴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며, 의식 상태는 각 영역들이 복잡하게 활동하며 뇌 전체에 정보를 주고받는 연결구조가 잘 발달된 반면 무의식 상태는 그렇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분석함. 이와 연결하여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조지프프루)'를 읽고 인간의 인지 능력은 전전두 피질 세포가 다른 영역의 신경세포와 긴밀한 연결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감을 심화학습하며 신경계 내 상호작용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유기적으로 정교화 하는 해석능력을 발휘함. 수업 시간에 식물인간 뇌 기능에 대해 학습한 후 식물인간이 의식을 인지하여 소통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연구자료를 통해 알게 됨. 최근 뇌파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조사한 후 뉴런 활동전위와 전위차 개념을 적용해 뇌파 생성 및 측정 원리를 이해하고 교과에 대한 높은 이해 능력이 보임.</p>

설령 어렵게 위와 같은

상위권 대학의 생기부를 구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1) 이 표현은 왜 썼는지

2) 어떤 맥락에서 평가자에게 의미 있었는지

3) 내 생기부에 어떻게 녹여야 할지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생기부를 '볼 수 있는가'보다

'읽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생기부 추월차선

이공계열

🏠 생기부 추월차선 입시연구소 저

*발행처 및 유통 시 360도에 따라 차압됩니다

생기부 추월차선

인문계열

🏠 생기부 추월차선 입시연구소 저

*발행처 및 유통 시 360도에 따라 차압됩니다

생기부 추월차선

메디컬

🏠 생기부 추월차선 입시연구소 저

*발행처 및 유통 시 360도에 따라 차압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기부연구소의 전략 자료집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1) 실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

2) SKY/의대 등 최상위권 대학의 세특 예시

3) 입시 변화에 맞춘 최신 세특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진짜 생기부’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상위권 학교 합격생 생기부 '전문'은

이 자료집이 국내 유일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시만 나열된 게 아닙니다.

각 항목마다

주의해야 할 작성 포인트,

해당 세특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주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와

자료까지 꼼꼼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학년	영역	특기사항
		<p>리더십 강연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리더의 모습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진. 학교 캠페인부 소속으로 급연 캠페인을 통해 급연의 필요성을 폐후대본 재환용 캠페인을 통해 자원의 올바른 순환을 홍보함. ① 급음교육에 참여하여 개인과 가게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이 급음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p> <p>연에 참여한.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번역'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과 번역에 대해 비교하며 미래 번역의 의미에 대해 재고해 봄. 시사, 문학에 관심이 가지고 '포스트코로나, 뉴노멀을 말한다'의 다류분 시청한 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중요시되는 상생,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미디어 제작을 다짐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은 경쟁에서 돌봄으로 전환이라는 점을 알게 됨.</p> <p>시사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칼럼 10 편을 읽고, 아동혐오에 대해 아동이 성인의 이해와 수용,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PD 가 되어 미디어의 과급력을 현명히 사용하여 용인되었던 혐오와 불편한 진실들을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p> <p>으로 위 학생은 2 학년 때까지 PD 를 지양하다 3 학년 생기부 마감 직전 경영인으로 됐다. 이 경우 이전 활동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연계할 것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때 느닷없이 회계이론을 공부했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아니라, 3 학년 학기 시작 전 하이라이트 표시가 된 부분처럼 연계시킬 요지가 있는 소재를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3 학년 탐구활동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기획해야 한다.</p>

인문, 상경계열 합격생의 생활기록부

해당 생활기록부에 대한 해설

학생들이 실수하는 흔한 세특

'존 롤스 정의론-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이란 책을 읽고, 정의롭고 공평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탐구하게 됨

문제점

똑 같은 활동을 했지만, '안 좋게 평가받을 수 밖에 없는 세특'의 예시이다. 이렇게 WHY 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학생들의 경우, '활동의 내용 - 배운 점'을 담아놓고 끝내는 경우가 다반수고,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이러한 세특을 완성하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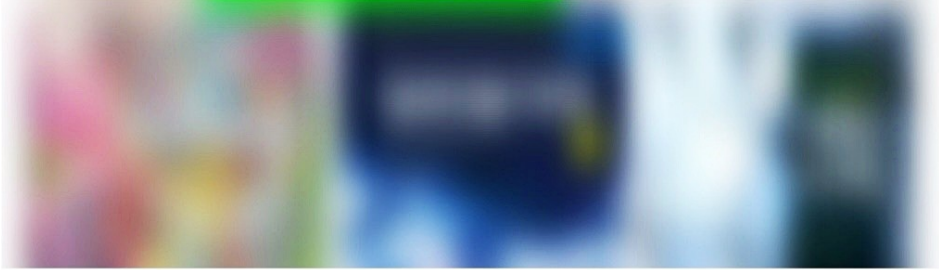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세특과 확연한 차이를 느꼈을 것이기에, 이제 생기부 추월차선을 읽은 학생들 만큼은 첫 번째 예시의 세특을 완성하기 위해 연계성을 담는데 주력하도록 하자.

Part 1.대치동 입시 전문가의 '좋은 주제 찾는 법'

그렇다면 좋은 주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좋은 주제의 조건을 아는 것과 좋은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여러가지 좋은 소재를 떠올린 후에 해당 소재에 기세 4 Step 에 부합하는 주제로 조건을 하나 하나씩 붙여가야 한다. 가장 막막한 단계는 역시 좋은 소재를 떠올리는 맨 처음 단계다. 소재를 떠올리는 것에도 별반 특별한 법칙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1)

주제를 찾을 수 있는 방법



합격하는 생기부,

울산 입시 컨설팅 없이도

스스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전략서가 있다면 말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자료는

2025 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제작된

가장 최신판으로,

다음 개정은 빠르면 2026 학년도에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입시 준비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공지</u> [200명 요청] 역전의 기회가 남은 고1 고2라면 : 9명 한정, 3차 공... (825)	2024. 10. 2.
공지 제가 한 활동, 학교에서는 떨어질거라 했었어요. (2)	2024. 6. 30.
공지 수능만점자, 서울대 의대치대 동시합격자가 말하는 '생기부 ㄷㅇㄷㅅ' (1)	2024. 6. 6.
공지 [마감] 1차 공식구매, 마감된 이후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2024. 4. 8.
공지 [9권 제한 / 마감 직전] 생기부 정답지 공개, 이제 컨설팅 받지 마세... (471)	2024. 5. 18.